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5년도 표어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생활지침 ◎

- 1.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자
- 2.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자
-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하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1996년도 교회학교 교사 임명 천국시민 양성을 위해 헌신을 다짐하며

오늘 I, II, III부 예배 시에 1996년도 교회학교 교사를 임명한다. 오늘 임명식에서는 교육위원회 산하 12개 교회학교의 교사 총 292명이 임명을 받게 된다.

우리 교회에는 모든 성도가 천국시민의 삶을 올바르게 영위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성된 학령 및 연령에 따른 12개 교회학교 교육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 교육이념(천국시민 생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체험하여 천국시민으로 성장케 하는 것을 이념으로 한다.

■ 교육목적(천국시민 양성)

- ① 거듭난 인간 ② 성숙한 신자 ③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 교육목표

교회학교 교육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함을 고백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경, 교회, 인간, 가정, 이웃, 역사와 우주, 사회와 국가, 직업, 재물 등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돌리는 데 목표를 두었다.

1996년도 교육위원회

- 교육위원회 지도: 원 호 목사 · 교육위원장: 나희주 장로
- 서기: 서문석 집사 · 회계: 왕경래 집사

교회학교	지도	부장	부감
탁 아 부	이영희 집사	이영기 장로	서춘식 집사, 이남복 권사
유 치 부	홍영록 신학생	이재권 장로	권영복 집사, 이성애 집사
유 년 부	최병호 목사	최중시 장로	허찬우 집사, 현경옥 집사
초 등 부	박종상 교역사	나희주 장로	신용식 집사, 최윤정 집사
중 등 부	박귀환 목사	박철훈 장로	임상헌 집사, 이정자 집사
고 등 부	김명현 목사	정병무 장로	안의경 집사, 김정희 집사
대 학 부	원 호 목사	노문환 장로	김세재 집사, 윤갑숙 집사
청 년 부	이만열 전도사	김광신 장로	하영수 집사, 주경자 집사
장 년 부	김영한 목사	김대호 장로	서문석 집사, 김중복 권사
소 망 부	전호진 목사	김태기 장로	박두영 집사, 김선미 권사
새가족부	이순환 목사	오정수 장로	김영준 집사, 원복순 집사
사 랑 부	임진태 목사	윤봉준 장로	왕경래 집사, 전인화 권사

성탄절 헌금 - 북한동포를 위해 사용키로

구제위원회(위원장: 이남호 장로)에서는 올해 성탄절 헌금 전액을 수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 동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강남·서초 지역 방위병 초청 전도집회

전도위원회(위원장: 김태기 장로)는 21일(목) 강남구와 서초구의 방위병 약 200명을 초청, 복음을 전하며 다과회를 베푼다. 이날 초청될 이들은 주로 동회와 구청 등에서 민원을 담당하고있다.

필그림예술선교단 창단

선교위원회(위원장: 노문환 장로)에서는 예술을 통하여 국내외에 복음을 증거하고자 '필그림 예술선교단(Pilgrim Art Mission)'을 창단키로 하였다. 연극, 음악 등 문화 활동과 문서를 통해 선교활동을 펴게 될 이 선교단의 감독은 선교위원장이 맡게 되며 단장에는 박두호 집사, 총무에는 김옥경 집사가 임명되었다.

신년 산상수련회 1월 5일 소망수양관에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각오로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한 신년 산상 수련회가 강남노회 연합으로 오는 1월 5일(금) 소망수양관(경기도 광주 소재)에서 열린다. 노회 소속 80여 개 교회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눌 이번 집회의 강사는 이종윤 목사, 관선희 목사, 신현균 목사이다.

교구 간사제도 시행키로

교구위원회(위원장: 김광신 장로)에서는 교구 행정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구 간사를 두기로 하였다. 교구 간사는 교구의 각종 통계와 보고서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성도들의 경조사를 교구 담당 교역자에게 알리고, 교회의 소식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1996년도에 수고할 교구 간사는 다음과 같다.

- 1교구: 이은희 집사 · 2교구: 이해순 집사
- 3교구: 정동호 집사 · 4교구: 김용구 집사
- 5교구: 이계홍 집사 · 6교구: 박동춘 집사
- 7교구: 호일성 집사 · 8교구: 김승현 집사
- 9교구: 신기숙 집사 · 10교구: 김선영 집사
- 11교구: 김정희 집사 · 12교구: 서희숙 집사

12월 학습·세례식 20일(수) I, II부 예배 시

1995년도 마지막 학습·세례식이 20일(수) I, II부 예배 시에 거행된다. 이에 앞서 학습자와 세례자를 위한 교육이 18일(월) 오후 7시 30분 4층 예배실에서, 문답이 19일(화) 오후 7시 30분 4층 예배실에서 있다.(문의: 새가족부)

성탄축하 찬양예배

메시아

Handel's Messiah

지휘: 박정선

오르간: 조은주

피아노: 정은영

합창: 할렐루야 찬양대

1995년 12월 17일(주일) 오후 5시
서울교회당

창세기 강해



에서와 에돔

(36장 9 - 43절)

이종윤 목사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있었을 때, 에서는 에돔으로부터 그를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가족들과 함께 올 때 에서는 400명의 군사와 함께 나왔습니다. 형제가 만났을 때 그들은 서로 열싸안고 기뻐했습니다만 그들은 곧 헤어졌습니다. 에서는 에돔으로 갔고 거기서 계속 번창했습니다. 반면 야곱은 가나안 땅에 거하셨습니다.

야곱은 자기 조상들처럼 가나안 땅의 나그네였습니다.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그 아들들은 곡식 구하러 갔다가 에굽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에서의 후예들은 야곱의 자녀들보다 우월하고 번영과 자랑할만한 것들을 당대에 누렸습니다.

오늘날 역사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대로 세일산은 황무하게 되었고 (겔35:3, 7, 9),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이 되었습니다.

1. 에돔의 역사

에서를 에돔으로 또는 에돔의 조상으로 표현한 곳이 다섯 군데나 나타납니다(1, 8, 9, 19, 43절). 에돔으로만 표현한 곳도 여섯 곳이 있습니다(15, 17, 20, 31, 32, 43). 그런가하면 에돔과 동의어로 세일이 5회 언급됩니다(8, 9, 20절에 두 번, 29절). 성경에 이같이 에돔이 강조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곱과 에서의 후예들이 이웃 나라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에돔과 이방 나라가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 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돔은 유대 국경 지대부근 요단강 동쪽과 모압의 남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땅은 시리아와 이집트 사이에 상업적인 요지로 상거래로 이득을 볼 수 있었고 사막의 대상(大商)들로 인구가 증가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에돔 땅은 해발 5000피트 이상의 고지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좋은 자연 조건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에돔의 초기 역사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 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이르러 에돔을 지나가기 원했으나 에돔 사람들의 거절로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민20:14 - 21).

다윗은 에돔을 정복했습니다(삼하8:13 - 14). 그후부터 솔로몬의 통치를 통해 에돔은 야곱 후손들에게 문제아로 등장했습니다. 그때까지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으로 더 강하고 더 오래된, 그리고 발전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이후 그같은 환경은 뒤집혔습니다. 에돔은 기원전 5세기에 국권을 상실했고 기원전 312년부터 나바테스(Nabateans)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두메라 불리웁니다. '이두메 사람 헤롯대왕'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마호멧 교도들이 정복한 후부터 그 지역은 다른 나라의 정복을 받지 않았고 최근 요르단 국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2. 에돔의 죄

오바다 선지자는 에돔의 죄를 두 가지로 지적하였습니다.

그 첫째가 교만의 죄입니다. 자연환경이 방어적이었던 에돔을 향해 오바다 선지자는 "바위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희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라고 책망합니다(오1:3). 또한 오바다는 교만한 에돔에 대해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 내리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전합니다(오1:4).

에돔의 두번째 죄는 형제를 향하여 포악했다는 것입니다(오1:11 - 14). 에스겔은 바벨론 침략 시 에돔이 예루살렘을 공격했다고 하였습니다(겔3:3 - 5, 왕하25:1 - 7, 시137:7).

3. 죄의 성상

에돔의 죄의 기원은 에서와 야곱의 다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도 이같은 갈등이 보입니다(민20:14 - 21).

오바다는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누탈 당할 때 무관심했던 것, 형제의 고통을 방관하고, 고난 중에 있는 형제를 외면한 채 자기를 크게 자랑한 교만에 대해 지적합니다(오1:11 - 14). 에돔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는 유대인들을 붙잡아 원수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죄였던 것입니다. 죄는 점점 자라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두 왕의 대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 에돔과 야곱의 후예입니다.

이두메인 즉 에돔인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대왕의 아들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자입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했습니다. 쾌락을 즐겼고 그의 통치는 "내게 유익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기준을 두었습니다.

또 다른 한 왕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왕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겸손의 옷을 입었으며 백성들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만 하면 열 두 영도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도 있고, 헤롯을 왕의 보좌에서 밀어낼 수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어찌해야 내 형제들에게 최고의 유익(구원)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셨고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부활로 이어졌고 오늘날도 그를 믿는 자들 중에 계십니다.

헤롯은 그가 정복한 땅에서 버림을 받았고 예수님은 그가 버림받은 땅에서 존귀함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는 헤롯의 길과 예수님의 길을 동시에 갈 수 없습니다. 타인보다 자기를 위해 사는 자는 결국 헤롯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좇아가야 하겠습니까.

✦ 순례자 컬럼 ✦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며 인간이 신을 섬기는 것이 도덕이요 종교이며 상식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어 세상에 오시되 섬기러 왔노라 하셨으니 이것은 신비다. 높아질 줄만 알고 받기만을 좋아했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닮아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주는 삶을 살 때 비천한 말구유 위에 나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인간이 신에게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신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이 크리스마스다. 이 절기를 너무 미천하여 채 눈에 띄지도 않던 우리 주변의 솔한 소자들에게 눈을 돌리고 찾아가는 계절로 삼자.

낮은 곳으로 비강해 오신 그리스도처럼 희생과 섬김과 용서가 있는 성탄절을 만들어 모두에게 축복의 계절이 되게 하자.

■ 순결서약식의 중요성

진정한 사랑은...

대부분의 부모나 교사들은 자신의 아이들은 순결하리라고 생각한다. 혹 염려가 되더라도 내 아이만은 아니라고 믿고 싶어한다. 그러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8세가 될 때까지 42%의 교회 젊은이들이 순결을 상실 했으며 교회에 출석하는 청소년의 3분의 1 이상의 십대들이 서로 동의한다면 성접촉이 용납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성문제의 대두와 더불어 자연스레 성교육도 활성화 되었지만 그로 인한 역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 즉 문란한 성풍조와 환경 속에 개방되어 있는 그들에게 이성과 절제만을 전제로 하는 성교육은 오히려 성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며, 몰랐던 성지식을 접하는 계기가 되고, 성접촉을 가볍게 여기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교회는 이와 같은 일반 성교육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무시할 수 없는 성교육에 관해 고민하다가 성교육의 역기능을 배제하면서 세대에 휩쓸리지 않고 명확한 의사대로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편으로 순결교육과 순결서약식을 실시하게 되었다. 순결교육은 육체에 대한 바른 지식 전달뿐 아니라 육체를 순결하게 지켜야 하는 정신과 자세를 그 핵심으로 한다.

청소년들이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랑의 연수원 원장인 김용진 박사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제시하고 있다.

(1)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관인 '마음'을 보호하기 원하신다는 것이다. 결혼 전 순결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결혼 후에 심리적으로 죄책감을 갖게 되거나 비교하게 됨으로 관계가 원만해지지 못할 수 있다.

(2)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포로부터 보호하고, 성적으로 생기는 온갖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신다.

(3) 하나님은 사랑과 성이 혼동되기를 원치 않으신다.

(4) 하나님께서는 상대방을 진정으로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일단 청소년들이 육체관계로 들어가면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대신 성에 대해 주관심을 갖게 되고 상대방의 진정한 면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는 점차 줄어들게 된다.

(5)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 청소년들이 순결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도록 하여 신앙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하신다.

순결교육을 통해 교회는 청소년들이 친구로부터 성관계를 유혹받거나 압력을 받을 때 우정을 손상시키지 않고 한 인격으로 인정받고 싶은 자신의 감정을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돕게 된다. 또한 성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건전하고 성경적인 이해의 토대 위에서 "No"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인식하게 한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건디는 것"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순결을 지킬 것을 여러 성도들 앞에서 약속하는 서약식은 주를 향한 믿음 안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 그림 한 편을 감상하며

뒷모습을 보이신 하나님

김 규 문 (예담교회, 장로)

나는 미술작품 감상하기를 즐겨한다. 특별히 에덴동산의 광경을 그린 그림들을 좋아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에덴동산을 여러 화가들이 저마다의 개성을 가지고 표현했으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 아름다움과 평화를 담았기에 더욱 좋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마음의 눈으로 보고 아름다운 형상과 색채로 표현한 화가들에게 감사하면서 그들의 세계를 그림을 통해 공유해 보곤 한다. 그들이 표현한 에덴동산에는 노래하는 새들, 온갖 짐승들과 기화요초가 만발한 아름다움이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동산에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사같은 그림 속의 남자와 여자를 따로 떼어 놓지 않고 하나로 두어 하나님께서 남자로부터 여자를 만드신 오묘한 창조를 표현하였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화에는 더욱 생명감 넘치게 인간의 창조가 묘사되어 있다.



그의 그림에서는 아담의 육신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에 의하여 하나님의 손가락 끝을 통해 생명을 얻는 것으로 보인다. 하늘과 땅을 가르시고 모든 창조물을 축복하신 후 하늘을 나르는 하나님의 얼굴은 온 우주의 무게를 지탱하는 듯 장엄하기만 하며 아담은 마치 대지의 일부인 듯하다. 생명의 탄생을 이와 같이 신비하게 묘사한 그림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못 그리고 고민했을 화가의 심정을 상상해 본다.

불가사의한 아름다움으로 표현된 중엄한 하나님의 모습은 그림을 그린 후 얼마 있다가 죽은 사람의 뒷상이라기보다는 하늘의 천사가 잠깐 미켈란젤로의 육신을 빌어 내려와 제작한 것 같아 보인다. 이런 그림을 통해 고민하던 작가의 내면세계보다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뜻을 찾게 됨은 나만의 비약일까?

■ 필그림예술선교단 태동

"마굿간에 모인 따뜻한 마음들"

강화의 아름다운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자리한 한 농가. 외양간이 무대의상과 연극에 쓰이는 소품을 만드는 제작실로 변했고 마굿간은 차도 마시며 담소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꾸며졌다.

1996년 정식으로 창단될 <필그림예술선교단>의 총무인 김옥경 집사는 오랫동안 장애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연극을 시도하였다. 농아들은 수화로 뮤지컬을 하고, 맹인들은 반주와 노래를 맡고, 소아마비들은 의상, 소품의 제작과 음향을 담당하고... 그러한 작품이 완성되려면 거동이 불편한 이들에겐 함께 할 수 있는 작업실이 필요했다. 결국 강화에 한 농가를 수리해서 작업실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곳에 관심을 갖고 방문하는 이들의 도움으로 전기, 전화선이 이어지고 하나 둘 씩 필요한 것이 채워져 이제는 제법 근사한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

1996년 사업계획은 연습실을 마련하는 일인데 <필그림예술선교단>의 목적을 잘 아는 이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겠다는 뜻을 비추기도 했다고.

<필그림예술선교단>의 1996년도 활동은 오는 1월 16일 인도의 11개 지역 순회공연을 시작으로, 7월에 중국 순회 공연, 12월에 본격적인 수화뮤지컬을 발표 하는 일 등 매우 활발한 활동 계획이 짜여져 있다. 또한 '96 전국 연극제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장애인들이 정성들여 손수 쓰고 그린 편지들로 복음을 전하는 문서 선교도 할 예정인데 이 모든 일이 그 마굿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필그림예술선교단>의 단원들은 이 훈훈한 공간이 음악, 미술, 연극 등에 관심과 재능있는 분들의 참여와 사랑 가득한 이들의 마음으로 더욱 따뜻해져 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율곡리 142-2번지 ☎ 0349-33-9344

■ 소식

연말 특별 당회 - 예·결산안 심의

우리 교회 당회는 15일(금) 경기도 기흥에서 연말 당회를 열었다. 이날 당회원들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새해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심의하였다. 연말 특별 당회에서 마련된 안건은 연말에 있을 특별 제직회와 연초의 공동의회에서 처리 될 예정이다.

순결서약식 오리엔테이션

우리 교회에서는 오는 1월 7일(주일)에 13세 이상 미혼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순결서약식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1월 5일(금)에 오리엔테이션을 한다. 김용진 박사(사랑의 연수원)와 원호 목사(교육위원회 지도)를 강사로 오후 7시부터 1시간 반동안 진행될 이날의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서약자와 그 부모를 대상으로 순결교육과 서약식 진행을 위한 유의사항을 전달받게 된다.

한편 순결서약식 준비위원회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순결서약식의 모범적이고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기획부, 교육부, 홍보부, 봉사부, 출판부, 재정부 등 6개 부서의 위원을 임명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임마누엘찬양대 임시 지휘자에 박종상 교역사

찬양위원회(위원장: 홍정호 장로)는 박종상 교역사를 임마누엘 찬양대 임시 지휘자로 임명하였다. 박 교역사는 장신대원을 졸업하였고 아프리카니스탄 선교사 후보생이며, 현재 초등부 지도와 100교회 운동 간사로 일하고 있다.

강남노회 교육정책세미나

서울 강남노회 교육부에서는 18일(월)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소망교회당에서 '21세기 교회 교육을 위한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이 세미나에서 박동현 교수(장신대)가 '슬기롭게 하는 교육'이라는 제하의 강연을, 홍순화 목사(주심교회)가 '교회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강의한다. 교회학교 교사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 목회자·교우 동정 ■

- * 이종운 목사는 12일(화) 예장 총회 21세기 교단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위원회에 참석. 15일(금)에는 선한 사마리아 선교회 인도, 장신대 선교 연구위원회 참석. 19일(화) 오후 2시 육사교회 교육관 헌당식 설교.
- * 김상철 집사(3교구, 예배위원)는 세계인권일인 12일(화) 미국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초청으로 인권문제 청문회에서 '남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해 연설.
- * 조원섭·김혜련 집사(11교구)는 14일(목) 송파구 송파동에 '서울꽃방' 개업(☎ 425 - 0866)
- * 김두생·김덕희 성도(11교구)는 15(금) 강남구 역삼동에 '광명안경점' 개업(☎ 552 - 3033)

1996년도 예배위원회

지도 임진태 목사
 위원장 최종시 장로
 서기 김상철 집사 부서기 오형철 집사
 회계 오광환 집사 부회계 한정아, 이안순 집사
 위원 각 부장 및 책임자

담당	부장	음향, 조명	강단	현금 책임	안내		
					총	남	여
주일 I 부	오광환	권오현, 권효진	황재연	김혜련	1	김성준, 김희석, 홍일성, 오형철	김선영, 황재연, 이명아, 김혜영, 이기숙, 주임옥
					현		
주일 II 부	김중근	권오현, 권효진	한명순	김경아	1	김중근, 김상철, 구동철, 김종운	최승옥, 한명순, 이명숙, 김혜아
					2	김진환, 이종호	김미자, 이계옥, 이순영, 한정아 서희자
주일 III 부	최광성	김성호, 권오철	김귀자	최미아	1	김규태, 김시환	김귀자, 이안순, 신기숙
					현		
찬양예배	김시환	김성호, 권오현, 권오철	한명순		1	김중근, 김시환	김상옥, 이안순, 김수호
수요 I 부	이안순		이안순		1		이안순, 윤숙지
수요 II 부	김규태		김경아		1	김규태	이기숙, 하숙

부서	부장	위원
성례부	양숙란	방계은, 김은애, 최경애, 박순봉, 박순옥, 김명숙, 이민화, 최무순, 이정숙, 박경희, 최영순, 윤문자, 홍계식, 이부자, 전인화
치량관리부	이관규	1부: 이관규, 조정식, 한길동, 이인근, 김승호, 이상근, 최재규, 탁경준, 서정원, 조원섭, 김관영, 임선철 2부: 박두호, 성준경, 이승우, 김대웅, 김영규, 허상환

교구일꾼들을 찾아온 산타클로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기에 수고의 땀을 흘린 12개 교구 일꾼들에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고 가셨다. 선물은 다리미판. 심방할 때 마음의 단정함과 온유함으로 하듯 옷차림도 정갈하게 하라는 메시지를 담은 양하다. 300개의 다리미판을 가져온 산타클로스는 이름도 출처도 알 수가 없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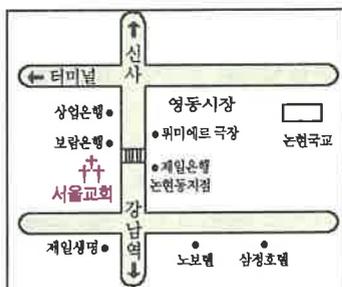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IKY 837KHz) 「성서강해」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IL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 5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매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III 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회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이 양성되도록
2. 주님께서 오신 의미를 묵상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3. 연말 연시 행사들이 은혜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4. 국가적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도록